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 「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 「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나라의 환경청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한다. 원집자註



夢裡也不能安寧

「環境保護」是每個人都應該注意的。在我們的生活環境中，有許多污染源，如工廠、汽車、家庭用電器等，這些污染源會產生大量的廢氣、廢水、廢渣，對我們的健康和生活造成嚴重的威脅。為了保護我們的環境，我們必須採取有效的措施，減少污染物的排放，改善我們的環境質量。只有這樣，我們才能在一個清潔、健康、舒適的環境中生活。

꿈속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다

과학자의 연구보고문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귀가 받아들이는 소리의 양, 즉 음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소음도 「수질오염」, 「독가스」등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의 일종으로서 인류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인체건강을 해칩니다. 게다가 소음의 피해는 세균이나 독가스보다 더욱 무섭습니다.

무릇 모든 귀가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음량은 그것이 음악이건, 노래소리건, 여전히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기계소리건, 비행기소리건, 자동차의 모터소리건 만약 음향이 너무커서 귀에 자극이 되면, 모두들 곤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 개인이 늘 이러한 환경속에서 장기간동안 소란스런 소음을 들으면서 생활한다면, 고막이 피해를 입는것은 물론이려니와 청각신경에도 영향이 있게되고, 게다가 신경제까지 자극되어 사람의 정신을 불안케하고 심지어는 정신병으로까지 몰고가게 될

것입니다. 신경이 피해를 입고나면 곧 잠자리도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환경을 돌보지 않고, 대량의 소음을 만들어내니,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들인가를!

오늘날, 거리에서 소음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오토바이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중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웅심을 드러냅니다.

—사실상 아주 유치하게 고의적으로 오토바이의 소음기(소리를 없애는 기계)를 떼어내고, ‘삐삐삐삐’하면서 커다란 사거리 등에서 소리를 내지르며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깊은 밤에 다른 사람의 안정을 무시하고는 큰길, 골목길을 빈번히 왕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을 꿈도 제대로 편하게 꿀 수 없게 합니다. 소음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